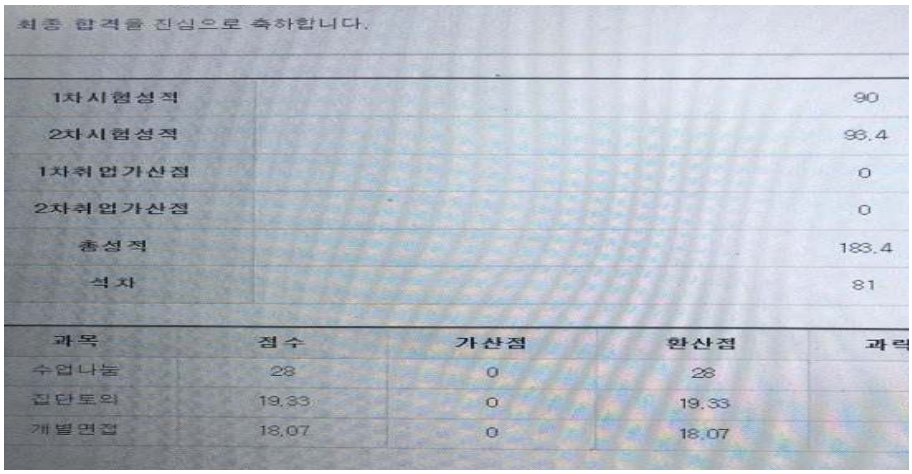
2019 유아임용 합격수기 - 경기 편

<u>들어가기에 앞서...</u>

먼저 2018년 한 해 동안 저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2019 유아임용 최종합격의 축복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요!! 감사합니다.
2018년은요 저에게 정말 잊지 못할 해예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했던 해예요. 또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던 와중에도 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제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해이기도 해요.
선생님들께도 2019년이 최고로 의미 있는 해가, 승리의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저는 합격생들의 여러 합격수기를 보면서 공부의 가닥을 잡을 수 있었고,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점검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제 합격수기가 한 분의 선생님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수기이지만 적어보아요!
저는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저도 해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어요. 응원하고 기도하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점수 참고
1차 - **90점** (경기 컷 86) / 교육과정 73, 논술 17
2차 - **93.4점** (경기 컷 91.45) / 수업실연 28, 수업나눔 28, 집단토의 19.33, 개별면접 18.07
최종 - 183.4점 / 223명 중 **81등**


최종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차시험성적	90
2차시험성적	93.4
1차취업가산점	0
2차취업가산점	0
총성적	183.4
석차	81

과목	점수	가산점	합산점	과목
수업나눔	28	0	28	
집단토의	19.33	0	19.33	
개별면접	18.07	0	18.07	

*공부 상황
- **초수** / 대학 졸업 후 1년 준비 / **올인** / 독서실 다니며 공부
- **민샘 직강 1년 패키지**(논술 포함)

자세하게 적다보니 정말 길어졌네요..ㅠㅠ 시기별로 정리했으니 선생님이 원하시는 부분 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공부 방법 - 시기별

1-2월	- 1월 상황 : 한 달 동안 유치원에서 수업보조 아르바이트(오전 8시~2시)를 했었어요. 안 그래도 앉아있는 습관도 못 들인 상태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니까 1월에는 정말 공부시간이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도 '아직 1월이니까 괜찮아! 천천히 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공부시간	1월 - 2~4h (평균 3h) 2월 - 3~7h (평균 5h)
	고시문	저는 고시문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외웠어요. - 1월 : 손으로 옮겨 쓰기 / 타이핑으로 옮겨 쓰기 / 3,4,5세의 차이를 구분하면서 읽어보기 이런 식으로만 했어요.

- 2월 : 저 같은 경우는 고시문 중 가장 외우기 힘들었던 것은 총론이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 외웠어요. 예를 들어 구성방향 안에 6개가 있어요. 그럼 그 6개를 합쳐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머릿속에 각인시켜 버렸어요. 그림만 보면 6개의 문장이 생각날 수 있도록요! 신의사예자 같은 경우는 일단 목표와 내용범주, 내용 이렇게만 외워 놓았어요.

개론

- 제 일주일의 일과는 이러했어요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직강	휴식	정독	암기카드 워드작업	암기카드 만들기	암기	

* 공부방법 : 해당 주의 파트 내용(ex.발달,교사론) / 정독 → 암기카드를 만들어서 공부하기

- 토,일 : 직강을 다녀오면 너무너무x100 힘들어서 그냥 쉬었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다녀서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쉬었습니다!

- 월 : 책을 읽으면서 강의 때 들었던 것을 회상했어요. 꼼꼼히 읽기보다는 이해 안되는 게 있나 ~ 확인하면서 읽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공부하던 습관이 없던지라 가만히 앉아서 책 정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구요ㅋㅋ 읽히지도 않고 집중도 안되고... 그래서 여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 화,수 : 제가 정말 정말 정말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공부방법인 '**암기카드**' !
암기카드는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매주 배운 것을 타이핑해서 카드로 만들었어요. 용어를 괄호 치거나 내용이나 정의를 괄호치는 방법인데 1-2월달에는 용어를 괄호 쳐서 외웠어요. 내용을 보고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용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정도로요! 이 암기카드 방법은 스터디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스터디 내용은 밑에 썼습니당. 암기카드의 장점은 여러 모양의 복습이 가능하다는 점이예요. 책을 정독한 후에 암기카드를 만들기 위해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잖아요. 이때 암기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요약,정리해서 타이핑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책을 여러번 읽으면서 생각 생각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또 그 다음에 암기카드 파일을 프린트해서 가위로 자르고 합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 번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카드를 가지고 암기를 할 때도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 주에 최소 3-4번 복습이 가능해요! (단...암기카드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순수 노동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요.....) 저는 이 암기카드를 웹지도 반까지 계~속 보면서 복습했어요.

- 목,금 : 만든 암기카드를 가지고 이제 한 장 한 장 외워나갔어요. 만약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아무래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책으로 돌아가 한 번 읽어보고 다시 암기하고! 이런식으로 진행했어요.

* 암기카드 만드는 방법 : 제가 올린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그 파일대로 타이핑을 해서 프린트를 하구요. 가운데는 자르면 안돼용! 그걸 그대로 접어서 왼쪽에는 빈칸, 오른쪽에는 답! 이렇게 적어서 펀치로 뚫은 다음에 고리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 암기카드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이해도 되고 공부도 된답니다. 파일은 올려드리지만 참고만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출

- 민샘의 경우 기존에 찍어두셨던 2017년도의 기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일단 다 듣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문제를 풀 역량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해하며 넘어가고 민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내용은 필기도 해두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필기하실 때 책 끝 쪽에 하세요 ㅠㅠ 저는 지문에 그대로 필기를 했더니 나중에 혼자 문제 풀어볼 때 필기한 게 자꾸 보여 불편했답니당..)

해지

이 때 해지는 읽지 않았어요. 해지는 3-5월부터 읽었습니다!

스터디

저는 1년 동안 동기와 함께 짝스터디를 했어요!
직강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있는 스터디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어요.
① 공부시간 인증 - 밴드에 하루 동안의 공부시간을 찍어 올리기

	② 지도서 읽기 - 만 5세 지도서를 하루에 10개씩 읽었어요. 이때는 아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읽는 것'에만 의의를 두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시간낭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ㅎㅎ 지도서는 전략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이건 2차 때 이야기 해볼게요. (하루 10개로 진행했을 때 5월 중순 쯤 끝났어요.) ③ **암기카드** 인출 스터디- 제가 가~장 효과를 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공부방법이자 스터디 입니다. 위에 쓴 방법처럼 암기카드를 만들고 토요일에 친구와 만나서 직강 시작하기 전까지 암기카드 만든 것을 토대로 질문해서 서로 검사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한 명당 30-40 분 정도 걸렸어요! 나 혼자 할 때보다 스터디로 하게 되면 약간의 강제성도 있고, 상대방이 검사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외워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도, 함께 했던 친구도 합격을 했으니 도움을 본 게 맞겠지요!!!! ex. 내가 만든 암기카드를 상대방이 보면서 질문하면 내가 대답. 상대방의 암기카드를 내가 보면서 질문하면 상대방이 대답. ④ 고시문 쓰기 - 이때는 고시문을 외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보았어요 : 손으로 옮겨 쓰기 / 타이핑으로 옮겨 쓰기 / 3,4,5세의 차이를 구분해보기 / 목표와 내용만 외우기
모의고사	* 1~2월 종강모의고사의 등수 : 256명 중 <u>174등</u> 중간보다 못한 등수였지요? ㅎㅎ 선생님들에게 꼭 말씀 드리고 싶은게 여기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철인이 아니여요. 특히나 초수는 더 그래요. 어쩌면 시험 직전까지 내가 모자르고 부족하다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1-2월은 더욱이 부족하겠죠? 공부 방법도 정립하는 단계이고, 새롭고 방대한 내용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첫 시작이다 보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 이 유아 임용은 점점 발전해가는 나를 발견하는 시험이예요. 5월 누리과정 까지는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u>이해</u>**'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등수가 잘 나오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은 ' 이 다음번의 모의고사 때는 더 잘할거야.' 요 정도! 인 것 같아요.
멘탈관리	- 저는 2월부터 7월까지 핸드폰을 집에 놓고 다녔어요. 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물리적으로 차단 시키려구요. 그러다 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자기피드백	제가 플래너에 적어두었던 피드백 내용이예요. 제 시기별 실패 요인과 그에 대한 공부 방법 수정이 결국 결과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공유해볼게요. <table><tr><td rowspan="4">내가 놓친 것</td><td>인출하지 않고 단어 중심으로만 외움 - 내용은 잘 외우지 않았음</td></tr><tr><td>1월에 앞부분 복습을 잘 못했음</td></tr><tr><td>책 정독은 조금, 암기카드로 외우기 급급함</td></tr><tr><td>전에 외운 것을 다시 복습하지 않음</td></tr><tr><td rowspan="6">3-6월에 수정할 것</td><td>강의 듣고 집에 와서 바로 복습할 것</td></tr><tr><td>복습법 바꾸기 : 책 정독→정리→암기카드→암기→확인학습문제 풀기→기출문제 풀기</td></tr><tr><td>각론 공부하면서 ①개론 내용 & ②전 주 내용 복습하기</td></tr><tr><td>암기할 때 내용 인출도 같이 하기</td></tr><tr><td>완벽히 외우기, 그리고 반복하기</td></tr></table>
강조할 점	- **<u>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u>**! : 1-5월에는 무조건 '이해'를 우선순위에 두셔야 해요.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은 정말 당연한 거예요. 술술 암기의 최적기는 나중에 하도 반복해서 지겨울 때쯤인 9-10월입니당. 지금은요 이해를 하셔야 해요. 이해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정말 암기를 해야 할 때, 이 내용이 뭐였지..? 하고 이해가 안되면 다시 돌아가서 책을 읽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겨요. 나중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ㅠㅠ 지금 미리미리 이해를 충분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암기가 분명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정독을 여러 번 하시든, 저처럼 암기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번 복습을 하시든 선생님께 맞는 방법으로 강의에서 들은 내용은 무조건 그 주에 이해를 끝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 **<u>용어 정도는 암기하자</u>** : 제 암기력은 평범평범 극 평범의 수준이예요. 이런 능력에

	서 1년을 지내볼 때에, 1-5월에 배운 내용 중 용어는 암기하고 내용은 이해했을 때 나중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내용도 어느정도 암기하면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역량이 되지 못했어요..ㅋㅋ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선까지만 이라도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월

- 1,2월달의 경험을 양분 삼아 3-5월은 공부시간도 늘리고 공부방법을 바꿔서 공부해보았어요.

공부시간	3월 - 4~9h (평균 7h) 4월 - 4~9h (평균 7,8h) 5월 - 4~10h (평균 7,8h)
고시문	이 때에는 일주일에 한 영역만 외우는 걸 했어요. ex. 1주일 동안 신체운동 건강, 다음 1주일은 의사소통 이렇게요! 또 많이 틀리더라도 매일 타이핑으로 한 영역 쓰기 실천!
지도서	1-2월달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개론복습	각론을 공부하고 난 후 6월부터는 문제풀이 & 나의 오개념 잡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상 5월달까지 개론과 각론을 이해 & 어느정도 암기를 해놔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요. 근데 각론이 진짜 양이 많아서 개론 복습을 놓치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저는 이 시기에 개론 복습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을 적어볼게요. 월 / 화 / 수 / 목 / 금 발달 / 사상 / 교사론 / 부모교육 / 아동복지 요런식으로 하루에 한 파트씩 복습을 진행했는데요. 개론 공부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1,2월달에 만든 암기카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날 해당되는 파트의 암기카드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 때는 1,2월달 것을 다시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술술술 내용을 말할 수 있게 되어요! 딱 이렇게 하루에 한 파트 암기카드 돌리기가 제 복습방법의 전부였어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면서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반복하기! 일주일에 보통 개론 암기카드를 한 바퀴 다 돌린다고 치면, 3-5월이었으니까 10번 정도는 본 게 되겠네요. 용어를 다 외웠다 싶으면 이제는 내용도 같이 중얼중얼 외워보는 거예요!
각론	이 때부터는 1-2월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많은 내용이 물 밀 듯이 머릿속에 들어와요. 신/의/사/예/자/운 파트가 각각의 매력이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소통을 정말 정말 많이 어려워 했고, 사회관계를 좋아했어요. 해당 파트(그 주 강의에서 배운 파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1,2월달처럼 동일합니다. 정독-암기카드 만들기-외우기 ! 여기서 추가된 것은 바로바로 강의를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직강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휭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졸기도 하기 때문에 각론 때부터는 꼭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은 당일날 혹은 월요일 정독하는 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듣고 듣고 또 들었어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각론도 복습이 정!!!말!!!!!!!! 중요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예습은 과감히 포기하고 복습만 했습니다! 복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월 / 화 / 수 / 목 / 금 진도 나간 파트 =사회관계 / 정독 / 암기카드 워드작업 / 암기카드 만들기 / 암기 복습 / 신운건 1/2 / 신운건 2/2 / 의사소통 1/2 / 의사소통 2/2 / 신운건,의사소통 만약 그 주에 사회관계를 배우고 있다! 하면 그전까지 공부했던 신운건,의사소통을 각각 1/2로 나누어서 하루에 1/2만큼 암기카드를 돌려보며 내가 외운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복습했어요! 이 복습의 목적 또한 잊혀지지 않기 위해, 내 머릿

	속에 계속 담아두기 위해! 였어요. 각론 복습을 할 때에는 내용까지 외우기는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용어 위주로 외우되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논술	민샘 패키지에서는 논술을 3월부터 시작한답니다. 저는 돌아보았을 때 3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직강에서 마침 제 동기 세 명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만나서 논술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이런식으로 진행했어요. 민샘이 해당 주에 수업하실 논술 문제를 미리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그 문제를 각자 미리 써왔어요. 보통 3-5월은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토요일 직강에 만나는 것을 기준으로 잡고, 목요일 밤까지 각자 써서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금요일날 다른 사람이 쓴 논술을 뽑아서 피드백을 해주고 토요일날 만나서 피드백 한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그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저는 초수라 처음에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할지 감이 안잡혔어요. 내용 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형식이나 문맥을 위주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같은 주제인데도 네 명이 쓴 형식과 문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사람의 논술을 비교해보면서 더 좋은 형식을 참고할 수 있었고 내가 다른 사람의 논술을 피드백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도 되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어요. ㅎㅎ 논술을 쓸 때에는 윤승현 3M 책을 구입해서 활용했습니다. 거기에는 윤승현 강사님이 쓴 모범답안도 있고 일반 수험생이 쓴 답안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문장이나 좋은 형식들을 체크하면서 제 논술에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토요일에 피드백을 받고 난 후에는 피드백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써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하지만.....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었지요..ㅎㅎ 결국 논술은 한 주에 한 번 쓴 게 되네요! *논술을 강사님에게 첨삭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한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논술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도 첨삭 받아보았으면 좋았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실제로 민샘 직강생 분들 중에 논술은 다른 강사님에게 들었던 분들도 더러 계셨어요. 그렇지만 첨삭을 받지 않아도 나 하기 나름이다! 생각도 들어요. 좋은 모범 답안들을 보면서 내걸로 만들면 그것도 도움이 충분히 되니까요. 논술은 결국 꾸준히 하면서 감을 잃지 않는게 중요하다는 결론이예요! 저는 논술 공부에 많은 비중을 두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꼭 써왔어요.
안전	안전은 먼저 민샘이 안전 특강을 엄청 많이 찍어 올려주셔요. 이것을 먼저 다 들어야 해요! 저는 이때 안전 암기카드도 진도에 맞춰 만들었어요. 대신 복습을 안했어요.. 내용이 되게 많은데 복습을 안하니까 나중에 웹지도 때 힘들더라구요. 안전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해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은 꼭 안전 특강 들을 때 확인학습도 풀어보시고, 복습도 해놓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중에 편하실거예요ㅎㅎ 암튼 저는 3-5월에는 안전 특강 들은 것에만 거의 의의를 두었어요.
기출	1,2월은 기출 강의를 모조리 들었다면 이제 3-5월은 문제 풀기 돌입입니다. 저는 3-5월 강의에서 한 파트가 마무리 되면, 그 다음에 기출을 풀었어요. 예를 들어 신운건을 강의에서 다 배우고 의사소통으로 넘어갔다면, 이제 기출을 신운건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공부를 동시에 하면서 기출은 그 전 파트인 신운건을 푼것이지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기출을 풀어야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체크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기출 분석을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문제와 해설을 꼼꼼히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해지	해지! 애증의 해지입니다... 저는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해지와 완벽하게 친해지지 못했답니다. 그냥 해지 안에 중요한 키워드 정도만 외운(완벽하게 X) 정도였어요.

	민샘 책에 있는 해지책도 읽고, 해지랑도 읽고, 다른 합격생이 만드신 해지합본도 읽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보았으나..... 해지는 읽어도 읽어도 뜬구름 같은 느낌이었어요 ㅋㅋ 그래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해지를 살짝은 놓고 대신 꾸준히 읽자! 이 방법으로 매일매일 하루에 한 파트 내지, 한 파트의 1/2 정도씩 읽었어요. 어느 때에는 좀 깊게 읽고 싶어서 일주일 내내 한 파트만 잘게 나누어서 읽기도 했어요. 최대한 친숙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게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교육과정이 변경된다고 하니까 해지의 중요성이 더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은 드는데 선생님이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겠지요..?!
목차	종강 모의고사를 본 후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 뭐하지? 생각을 하다가 뭔가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백지쓰기를 할 때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차란! 개론,각론 책의 내용들에서 큰 제목을 추려서(ex.프로이드의 방어기제 o가지)만들어 놓는거예요. 이거를 책을 보면서 최대한 빠짐없이 파일로 만들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발달 목차를 만들 때, 행동주의는 반두라,스키너 / 구성주의는 피아제, 비고츠키 이런식으로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되더라구요. 이 만든 목차는 나~중에 10월 말에 유용하게 사용했답니다. 구체적인건 10월달에서 설명 드릴게요.
스터디	1,2월 스터디와 동일 +추가 된 것> - 해지 스터디 : 해지를 하루에 한 파트씩 읽은 후 인증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 논술 스터디 : 저포함 4명이서 진행했어요. 위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모의고사	* 3-5월 모의고사 등수 : 391명 중 <u>48등</u> 1-2월달 모의고사에 비해 등수가 정말 껑충 뛰어버렸어요.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①마음가짐 ②공부방법 수정 ③**복습**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자기피드백	<table><tr><td rowspan="3">잘한 점</td><td>각론 공부하면서 전 주 내용과 개론 복습을 함 (복습의 중요성.....)</td></tr><tr><td>용어 뿐 아니라 내용도 외우려고 노력함</td></tr><tr><td>이해 안되는 부분은 수업녹음한 것을 다시 들어보면서 이해하고 넘어감</td></tr><tr><td rowspan="3">내가 놓친 것</td><td>내용을 정확히 외우지 못함</td></tr><tr><td>아직 세세한 부분까지 외우지 못함</td></tr><tr><td>운영, 자연탐구 파트가 정말 부족</td></tr><tr><td rowspan="3">6-8월에 수정할 것</td><td>세세한 부분까지 외우기</td></tr><tr><td>웹지도 책에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외우도록 노력하기</td></tr><tr><td>영역 간 편차 줄이기 (어떤 영역은 잘하고, 어떤 영역은 부족하고 이런 것 없게 골고루 공부하기)</td></tr></table>
멘탈관리	저는 3-5월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4월달 정도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며 공부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3월까지만 해도 근거없는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직 멀었어! 이랬는데 의사소통 들어가면서부터 나 이러다 큰일나겠다 정말 이 시험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정신을 차렸어요. 이 시험은 롱런이잖아요. 그래서 단기목표를 여러개 두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u>각론 종강 모의고사를 제 단기목표로 삼고 디데이까지 세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u> 마치 저 날이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공부 시간도 늘어난 것 같고, 집중도 더 잘 할 수 있었어요. 각론 시기에는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이 많은 내용들을 내가 진짜 소화할 수 있다고? 나 진짜 나중에 이거 다 외울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1,2월의 마음처럼 그래 내가 각론에서의 내용들을 이해는 하고 6월을 맞이하리라! 이렇게 목표를 두었어요. 완벽한 암기는 힘들어요 선생님... 제 짝샘은 암기 능력이 넘 넘 뛰어나서 이 시기에 거의 내용까지 완벽히 암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평범하디 평범했어요. 어쩔때는 자괴감도 들었고 나는 왜 이렇게 암기가 안되지? 자책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제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 한계를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평범한 머리고 지금 이시기에 나는 절대 완벽히

		외울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어느 용어정도까지는 어떻게든 외워보겠어. 그리고 나중에는 잘 할 수 있을거야.' 이렇게요.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현실적인 욕심과 목표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강조할 점	보통 종강모의고사 직전에 자연탐구,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민샘 강의를 들으면서 늘 만족했지만 운영은 각론 시기에 잘 다뤄주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 부분만 좀 아쉬웠어요. 거의 한주만에 후루룩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웹지도 반, 모의고사 반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운영파트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좀 힘들어했어요 ㅠㅠ 선생님들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3-5월에 운영을 미리 조금씩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운영은 일단 이해해놓으면 좋은 파트인 것 같거든요. TIP : **<u>각론 종강모의고사 때 점수 변별을 위해 자연탐구,운영 문제를 꽤 많이 내십니다</u>**! 종모 직전에 공부하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덜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종강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u>신운건 할 때 자연탐구와 운영 공부를 조금씩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u>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신운건,예술경험은 공부 양이 의사소통,사회관계보다 좀 나아요....의사소통과 사회관계 때는 정말 휘몰아칩니다...

6-8월

-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지옥의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기도 했구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웹지도 진도에 맞춰 공부하는 거였어요. 이때에는 두달? 안에 개론,각론을 모조리 다 나가기 때문에 한 주에 한 파트 정도이거든요. 한 주 안에 그 파트를 뭔가 다 끝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너무나 큰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괴로움과 방대한 양에 최대한 따라가려고 애써보니 끝나있더군요. 내가 완벽히 끝내겠다!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해보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공부시간	6월 - 7~11h (평균 9h) 7월 - 7~13h (평균 11h) 8월 - 7~12h (평균 11h) 이 시기에는 공부시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정말 할게 너~~~~~~~~~~무 많거든요ㅋㅋㅋ
고시문	이때는 하루에 한파트씩 꾸준히 타이핑 했어요. 틀린 것은 제 고시문 종이에 빨강색 점으로 표시해두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많이 틀리나 체크하고 암기하였습니당!
논술	이때는 민샘이 내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요! 3-5월에 했던 방법처럼, 민샘이 미리 문제를 올려주시면 그걸 미리 풀어서 동기들과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썼고 가끔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써보기도 했어요.
웹지도	민샘이 임용의 꽃이라고 하셨던 웹지도 기간! 웹지도 공부 방법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기도 하실거예요. 웹지도는 개론의 발달부터 각론의 운영까지 모든 내용이 한 권 안에 들어있어요! 일단 제 계획표를 보여드릴게요.

	월	화	수	목	금	토
고시문	신/총	의	사	예	자	총
웹지도	386-400	401-413	414-421	424-431 496-499		
문풀					문풀	
기출	평가1/2	평가2/2	신1/4	신2/4	신3/4	신4/4
자연탐구	과학	수학1/5	수학2/5	수학3/5	수학4/5	수학5/5
사회관계	1/6	2/6	3/6	4/6	5/6	6/6
유아평가	사건/면담	시간/사회	평정/관찰	행동/검사	포트	일화/표본
해지	아름다움	표현음악,춤	표현미술	표현극놀이,통합	감상	all
	사회 – 해지 빈칸 조금씩 만들기					
법	61-65/유아	66-70/유아	71-75/유아	76-80/아동	81-85/아동	86-90/아동

4주기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교직원	앞부분	
논술			논술쓰기			
예습문제	122~131	132~141	142~151	152~161	162~170	
전주복습 (오답확인)	사상,아동	놀이	부모	발달	신운건& 장애	교사/평가
안전	응급처치	교통	감염병,미세	생활안전	생활안전	
어제복습		386-400	401-413	414-421	424-431 496-499	

*그 주 공부방법 : 예를 들어 그 주에 발달을 나갔으면, 집에와서 일 주일 동안 발달!을 중점적으로 파는건데요. 민샘이 **하루하루 양을 쪼개서 파고드는 방법**을 추천해주셔서 저도 월,화,수,목 이렇게 4일동안 쪼개서 발달을 공부하고 금요일은 내가 푼 문제(전주에 미리 풀어둔 문제)를 채점해서 틀린 것 체크하면서 공부하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월-성숙주의, 화-행동주의, 수-구성주의 이런 식으로 페이지수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맡은 부분을 웹지도에 단권화를 하고 내 머리에 이해를 시키며 넣으려고 했어요. 웹지도가 그림처럼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말풍선을 보면서 ex. ~하니까 ~지. 이 말풍선과 옆에 있는 말풍선이 어떻게 관련이 있지? 아 ~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이해를 반드시 내 거화 시켜서 해놔야 나중에 암기할 때 금방 암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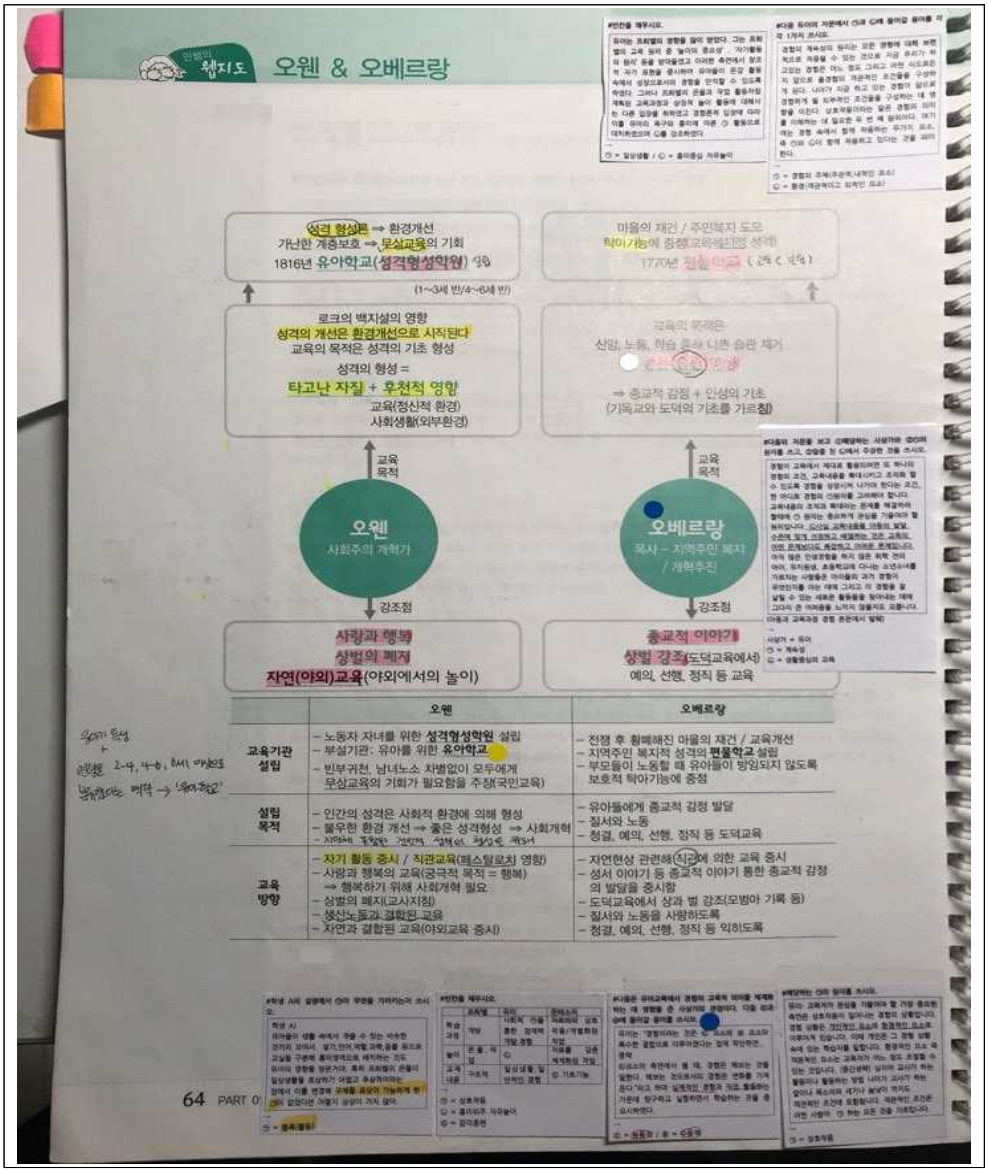
*암기 방법 : 일단 웹지도에 내 나름대로의 형광펜 칠을 하면서 그 페이지의 내용과 그림을 익혔어요. 그래야 암기가 되더라구요. 개각론 때와는 다른 구성이기 때문에.. 익힌 다음엔 그 내용을 자꾸 종이에 써보기도 하고, 말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단권화 만드는 시간 & 내 오개념 확인하는 데만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ㅠ 개론은 암기까지 되었는데 각론부터는 내용이 너무 방대했고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암기가 덜 되었어요.

*복습 : 제가 한 복습은 ①전 주에 공부한 내용 복습 ②어제 공부한 내용 복습 이 두 가지예요.
①**전 주 내용 복습** : 전주에 공부한 부분을 웹지도로 다시 한번 펴서 읽기도 하고, 손으로 가려서 읊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문제 틀린 것 중에 잘 모르겠는 거나 다시 보고 싶은 문제를 별표 쳐놓은 것을 다시 보았어요.
②**어제 한 내용 복습** : 어제 한 내용은 집과 독서실을 오가면서 생각나는대로 외워보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웹지도 책을 펴서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을 확인해보고!

*예습 : 저는 처음에 예습을 과감히 포기하고 복습만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의를 들을 때 비효율적인 느낌도 들고 약간 불안하더라구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대신 예습의 비중은 정말 조금! 조금만 두었어요. 제가 1-5월달에 만들어둔 암기카드를 강의 듣기 한 주 전에 1-2번 돌려보는 정도로요. 하루에 한 10-15분 걸렸어요. 이 암기카드는 밥 먹으면서나 집에서 자기 직전에 보았어요. 예습에 쏟을 시간이 없었거든요ㅠ

문풀	웹지도 시기에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아요! 민샘이 홈페이지에 문제를 미리 올려주시면 미리 풀어서 강의를 들으러 가는 일정이예요! ex. 해당 주에 의사소통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전주에 미리 의사소통 문제를 풀어감 이 때 어떤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예습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예습 없이 문제를 푸시기도 하셨어요. 저의 경우는 '복습' 만 하기에도 빠듯했기 때문

		에 처음에 예습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습 없이 바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문제를 엄청..정말 엄청 틀렸습니다. 자신 없는 과목에서는 한 페이지에 틀린 게 맞은 것보다 훨씬 많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맞은 게 하나도 없기도 했구요. 그러다 보니 안되겠어서 ㅋㅋ 각론 때부터는 예습을 조금 하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문제를 절대 하루에 몰아서 풀지 않았어요. 월,화,수,목,금 5일로 나누어서 풀었어요. 저는 오전에 정말 공부가 잘 안되고 졸려했거든요. 그래서 독서실 가자마자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졸리긴 한데 어떻게든 잠이 깨더라구요. 문제 푸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틀린 문제는 그 다음주 강의가 나간 후에 복습하고 금요일날 체크했거든요. 그 때 내가 다시 보고 싶은 문제를 얼른 타이핑해서 뽑은 다음에 웹지도에 붙였어요. 이것도 일종의 단권화네요!
	단권화	제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단권화를 엄청 어렵게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지..? 어떻게 하는거지..?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 게 아니여요..! 쉽게 말해 내가 공부할 책을 딱 한 권으로 지정해 그 책 안에 내가 보고 싶은 것, 공부하고 싶은 것을 다 집어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내가 편하게 공부하기 위해 한권으로 줄이는 거죠! 저는 단권화를 웹지도반 시작하면서 웹지도 책에 했어요. 웹지도 책에 단권화 한 방법은 일주일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①개,각론 책의 내용과 웹지도 비교하면서 웹지도에는 없고 개각론에만 있는 학자,이론,정의 등을 웹지도 책에 펜으로 정리** **②문제 푼 것 중 계속 보고 싶은 문제는 문제와 답 같이 타이핑 해서 웹지도 테두리 쪽에 붙임** **③민샘이 때마다 주시는 자료 중 새로운 것이나 계속 보고 싶은 것은 잘라서 붙임**



안전	저는 안전을 달달- 외우지는 못했어요. 이 당시에 제 공부 상태는 5월까지 안전 강의를 듣고 암기카드로 한 두 번 읽어본 정도..? 웹지도 기간에는 사실 안전에 신경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돌릴 수 있게 나누어서 하루에 조금씩 조금씩 읽어보기만 했는데요. 공부할 때 안전은 가장 뒷 순위에 미뤄두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다음날을 맞이한 날도 많답니다ㅠㅠ 안전은 어느 지역에서든지, 언제든지 늘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 2차 시험 때에도 안전 문제가 나온 것, 1차 시험 때 안전 관련 문제가 빠지지 않는 것 등 안전이 중요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게 됐다면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외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때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전을 그렇게 잘 해두지 않아서 2차 때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려웠어요.. 선생님들은 틈틈이 꼭 안전을 잘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	저는 법을 6월 중순부터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지요 ㅠㅠ 개인적으로 임용 공부 중 가~~~~~~장 뜬구름 같고 정말 막막했던 것이 이 법이예요. 근데 ! 신기한건 이 법이랑 조금만 친해지고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 수월해진다는 것이예요! 그 방법을 공유해볼게요. 일단 저는 처음에 법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너무너무 막막하고 뭘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래서 키망 샘의 '**톡톡2**' 책을 샀어요! 그리고는 **민샘이 올려주신 법 자료**를 다 다운 받았어요. 이 때 자료 두 부를 뽑았어요. 하나는 형광펜으로 칠할 용이었구요. 하나는 빈칸을 뚫어놓고 볼 용이었어요.

	형광펜으로 칠할 용을 ①번, 빈칸을 뚫고 볼 용을 ②번이라고 할게요. ①번에는 민샘이 자체적으로 빈칸 뚫으신 것(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겠지요) 과 톡톡 2에서 문제로 나오는 빈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①번에다가 모조리 형광펜으로 칠해주었어요. 그럼 나름 중요한 키워드들이 추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②번에서는 ①번의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찾아 화이트로 덮어줍니다. 그럼 ②번은 법 문제집이, ①번은 문제집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민샘이 올려주신 자료에 해당되는 법은 다 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저는 ①번을 파트를 나누어서 매일 읽기(익숙해지기 위해. 이게 중요해요) & 톡톡 2 문제(이때는 ②번을 풀지 않음) 풀기를 했어요. 톡톡 2를 매일 day 1,2씩 풀어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한 7월 말까지? 한 권 다 보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는 day 5 씩 빠르게 풀면서 또 한 번 돌렸어요. 저 나름대로는 다른 샘들에 비해 법을 늦게 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ㅠ 톡톡 2를 다시 한 번 돌릴 때에는 이제 내가 모르겠는 것은 모조리 다 샤프로 체크를 해놓았어요! 나중에 또 한 번 돌릴 때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구요. 톡톡2는 총 4번 정도 돌렸구요! 민샘 법자료는 그냥 계속 돌려보았어요.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법을 많이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한 부분,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 위주로 계속 반복해 보았어요. 법은 친해지도록 **계속 읽는 것과 & 반복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들어와요!! 아 그리구 저는 법을 느즈막히 시작했지만, 조금 일찍 읽기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인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을 먼저 읽어놓으시면 다른 법 공부는 좀 수월하실 거예요! 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 양이 가장 많거든요. gg 또 9월 모의고사 때부터 문제에 법이 나오거든요 ㅠ 그러니까 8월까지 최대한 친숙하게 읽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주기	민샘이 4주기 프린트를 주시거든요. 이것도 두 부를 뽑았어요. 그래서 하나는 빈칸을 뚫어서 문제 용, 답 용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아예 빈칸을 보면서 뭐가 들어갈까? 생각한 다음에 답을 보고 일대일 대응 하듯이 머리에 넣으려고 애썼어요. 4주기 같은 경우 아예 달달달 외우는 선생님들도 계시던데, 저는 이 4주기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나온다면 빈칸으로 뚫려 나오겠다 예상을 하고 단어 위주로 암기했어요. 일단 이 시기에는 4주기 표만! 외웠어요. 4주기 표 보면 크게 4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개를 하루에 하나씩 쪼개서 공부했어요.
기출	기출은 웹지도에서 진도를 나간 파트에 맞춰서 다시 한 번 풀어보고 해설을 읽었어요. ex. 신운건을 웹지도 강의에서 나갔다면 그 주에 신운건 양을 쪼개서 기출문제를 품 - 민샘 기출책은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했어요. 이 때 중요해 보이는 것, 잘 모르겠는 것은 표시를 해두었어요. 나중에 다시 보려구요!
해지	하루에 한 파트씩 읽었어요! 월-신 / 화-의 / 수-사 / 목-예 / 금-자,총 저는 해지에 힘을 쏟을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외우지는 못했고, 쭉쭉 읽었어요.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읽었어요ㅠㅠ
스터디	1-5월과 동일 - 암기카드는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암기카드 인출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의고사	*웹지도 종강 모의고사 : 59등 / 229등 - 웹지도 종강 모의고사를 치룰 때 저의 공부 상태는 '암기가 덜 된 상태' 였습니다. 이 때에는 모두가 다 열심히 할 때이기 때문에 제 상태에서 등수가 떨어질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절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저를 끊임없이 다독였어요. '그래 3-5월처럼 상승세가 있다면, 지금처럼 하락세도 있을 수 있어. 다른 샘들이 열심히 공부할 동안 나는 그만큼 하지 못한거야. 더 열심히 하면 모의고사 반 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야.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돼. 아직 괜찮아.' 이렇게요.

		선생님!!! 괜찮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해내실 수 있어요. 만약 점수가 낮게 나오셨다면, 모의 고사반 때 점점 등수를 올리겠다고 다짐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힘내세요!
	자기피드백	웹지도 반을 열심히 보냈지만... 중간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제가 100퍼센트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만족도는 70프로예요. 무조건 다 외우리라 다짐했지만 각론을 완벽히 외우지 못했고, 그 주에 모든 복습을 끝내겠다 다짐했지만 단권화,이해만 겨우 한 영역도 있거든요. 대신 이 때 얻은 것은 <u>오개념 확인 & 개,각론과 다르게 구조화 한 것</u> 이 두가지에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는 이 시기에는 오개념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 오개념이 있을 때에는 웹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각론은 줄글로 이루어진 책인데 반해 웹지도는 그것을 요약,압축한 책이기 때문에 내 이해 상태를 구체화 시키고 요약된 상태로 다시 한 번 구조화를 해야 했어요. 이 과정이 돌아보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멘탈관리	6-8월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에 가장 크게 무너졌어요. 여름이고 공부도 중반을 달리고 공부 양이 많기 때문에 정말..지치고..무너지고..힘들어요. 특히 저는 8월 쯤 개인적으로 건강 상 문제가 생겨서 일주일에 두 번 씩 병원을 다녀 오전 시간을 날리기도 했어요. 그 뿐 아니라 공부 할 때에도 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있었어요. 공부하다가 울고, 하루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기도 했어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억울했어요. 그렇게 2주를 보내고 나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야만 이번 해에 합격할 수 있겠다. 이 시기를 내가 독하게 이겨내지 못하면 나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무너지고 말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불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원인을 찾아내었어요. 바로 휴대폰이었어요. 1-6월까지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다녔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남자친구와 통화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매일 다음 카페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자꾸만 보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독서실에 가져오긴 하되, 꺼두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갈 때 켜서 남자친구와 통화하거나 ccm 찬양을 들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울적하고 슬프고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강조할 점	-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6월부터는 강사님이 '~ 해라. 이 시기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진짜일까..? **강사님을 믿고 따라**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 'YES!!!!!!!!'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샘의 경우에는 1-5월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 시기, 진짜 공부는 6월부터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웹지도 반에서는 **<u>'한 주 동안 진도 나가는 부분만큼은 내가 이 주에 반드시 끝내겠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세요.'</u>**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여기에 정말 동의해요. 왜냐하면 1-5월에 배운 양을 두 달 안에 빠르게 다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한 주에 공부할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이때에는 단순 복습이 아니라 나의 오개념을 확인하고 그 개념을 확실히 외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요.
9-10월	- 모의고사 반! 점수,등수 때문에 매주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때이지요 ㅎㅎ 저는 오직 민샘 문제로만 모의고사 반을 보냈습니다. 다른 강사들의 문제는 풀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웹지도 반 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공부를 덜 했다고 생각했고, 제 수준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u>새로운 것을 해내기 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u>**했어요. <u>그래서 모의고사 때 제가 틀린 문제들을 냠냠 꼭꼭 씹어 먹으려고</u> 노력했습니다.	
	공부시간	9월 - 5~12h (평균 9,10h) - 9월 중순까지 건강 문제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10월 - 10~12h (평균 11,12h)
고시문	이 시기에는 고시문을 빈칸에 대고 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 파일에 제가 알아서 연령 구분하고 알아서 내용 구분해서 타이핑 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안 틀리던 부분도 헷갈리고 틀리게 되더라구요. 나는 고시문을 틀에 대고 타이핑 하는 게 이제 너무 지겹다! 하시면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ex) 신운건 <안전하게 생활하기-교통안전 지키기> *3 : 교통안전 약속을 안다. *4,5 : 교통안전 약속을 알고 지킨다. *3,4,5 : 교통기관을 안전하게 이용한다.
웹지도	일단 제 웹지도 계획표를 올려볼게요. ①10월 전까지

	월	화	수	목	금	일
고시문	예	신	의	자	사	
논술			논술기출 18	논술모고		
개론&목차	교사론	부모교육	사상아복	발달	놀이	
각론&목차	예	신	의	자	사	
운영&목차	a	b	e	c	d	
기출	암기 전 먼저 기출 다시 확인 & 체크 2018문제 옮기기					
안전	a	b	c	d	e	
해지	예/구성방향	신/편성	의/운영	자/교수학습	사/평가	
법	1-10	11-20	21-30	31-40	41-50	
모의고사	종모a		종모b	모고a	모고b	
4주기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교직원	앞부분&교원능력	
To do	- 줄임말) 운영 中 교육과정=a / 교수학습이론&교육과정운영=b / 혼합&종일=c / 장애&총론=d /평가유아=e -줄임말) 안전 中 생활안전파트=a /교통=b /화재&신변안전=c / 응급처치=d / 안전교육젤앞부분&생기부=e					

②11월 전까지

	월	화	수	목	금	일
고시문	신	의	사	예	자	
논술		논술모고	논술한편씩 내용보기			
개론		발달부모	놀이교사	아동사상	부족한 부분	
각론		신사	의자	사		
운영	운영 ALL					
기출	13A	13B	12	11	10	
안전	a	b	c	d	e	
해지	신/구성방향	의/편성	사/운영	예/교수학습	자/평가	
법	6	1	2	3	4	5
모의고사	5회	종모,1회	2회	3회	4회	
4주기	앞부분&교원능력	교육과정	교육환경	건강안전	교직원	
To do	- 줄임말) 운영 中 교육과정=a / 교수학습이론&교육과정운영=b / 혼합&종일=c / 장애&총론=d /평가유아=e					

	- 줄임말) 안전 中 생활안전파트=a /교통=b /화재&신변안전=c / 응급처치=d / 안전교육젤앞부분&생기부=e - 줄임말) 법 中 유아,아동= 1 / 학대,공무,도로=2 / 식생활,어린이,학교보건=3 / 놀이,연수,교원지위=4 / 특수,부정,인성,저탄소,교육환경=5 / 환경교육,정보시스템,감염병=6

이 시기에는 공부방법이 계속 바뀌었어서 계획표가 좀 달라요.

9월>
-하루에 개론 한 영역, 각론 한 영역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 한 방법은! 웹지도를 보며 ①보면서 or 보지 않고 말해보기 ②공책에 기억하는 내용을 써보기 ③웹지도를 다시 곱씹으며 읽기 ④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암기하기
-여러 영역 중 '운영'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기존 돌리기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부족한 영역을 추가로 더 공부하여 보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새로운 도전을 한 시기입니다. 저는 이때 '아 뭔가 아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건 계속 모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암기가 안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ㅠㅠ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선택한게 바로 **타이핑 백지쓰기**입니다.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타이핑으로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정말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ㅠ
<타이핑 백지쓰기 방법>
*하루에 개론 한 영역, 각론 한 영역 이렇게 했어용.
①목차를 보고 해당하는 내용을 아는대로 다 쓰기(목차라 함은 제가 올린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②웹지도를 보면서 빠진 부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채워넣기. 이때!!!!! 빨강색으로 바꿔주기
→여기까지 전 영역을 하면 일주일이 걸립니다. 타이핑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요.
③컬러로 프린트 하기
④빨강색 부분을 몽땅 달달달달 외우기 (이때 중요한 것은, 검정색 부분은 이미 내가 알고 쓴 것이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꼭 빨강색 부분만 보는 거예요)
⑤다시 백지 상태에서 타이핑으로 아는 대로 다 쓰기
⑥웹지도를 보면서 빠진 부분,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을 보충해 빨강색으로 채워넣기
⑦이렇게 3-4번 반복하기 → 내가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남.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암기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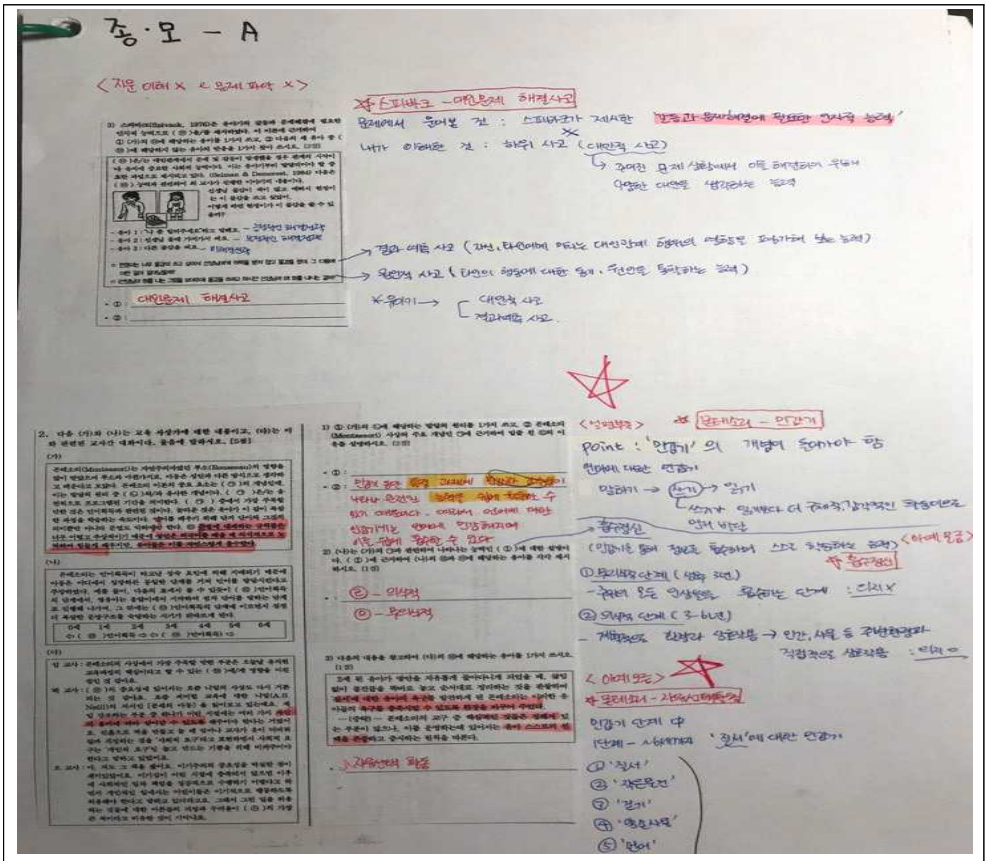
모의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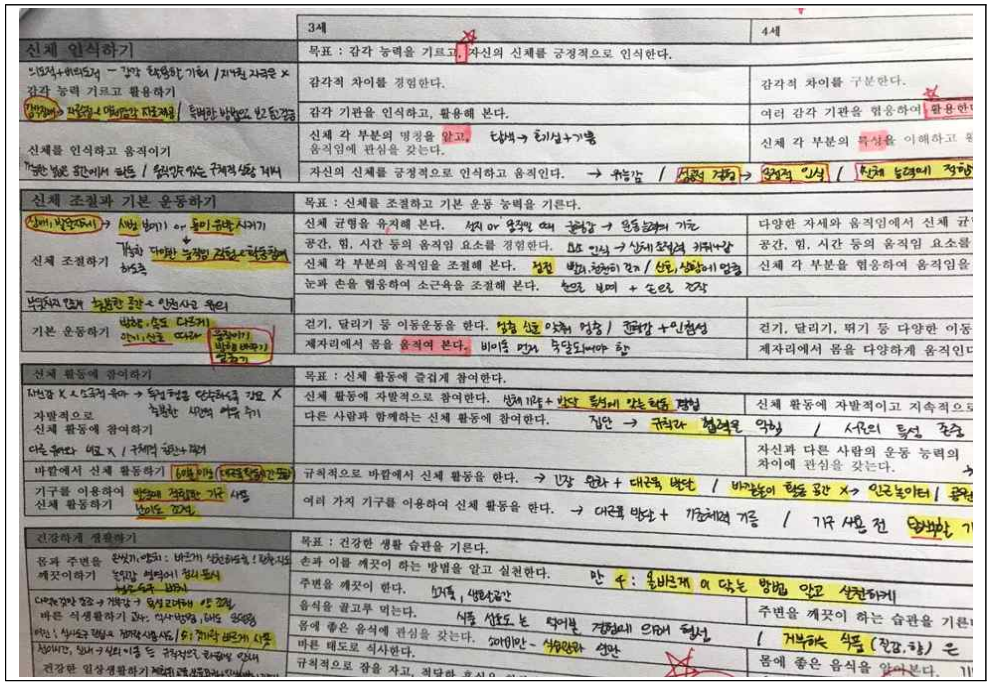
모의고사 점수와 등수를 먼저 적어볼게요.

종강모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46.6점 / 59등	63점 / 16등	56.5점 / 41등	56점 / 57등	60.5점 / 20등	50.5점 / 33등	58점 / 20등	5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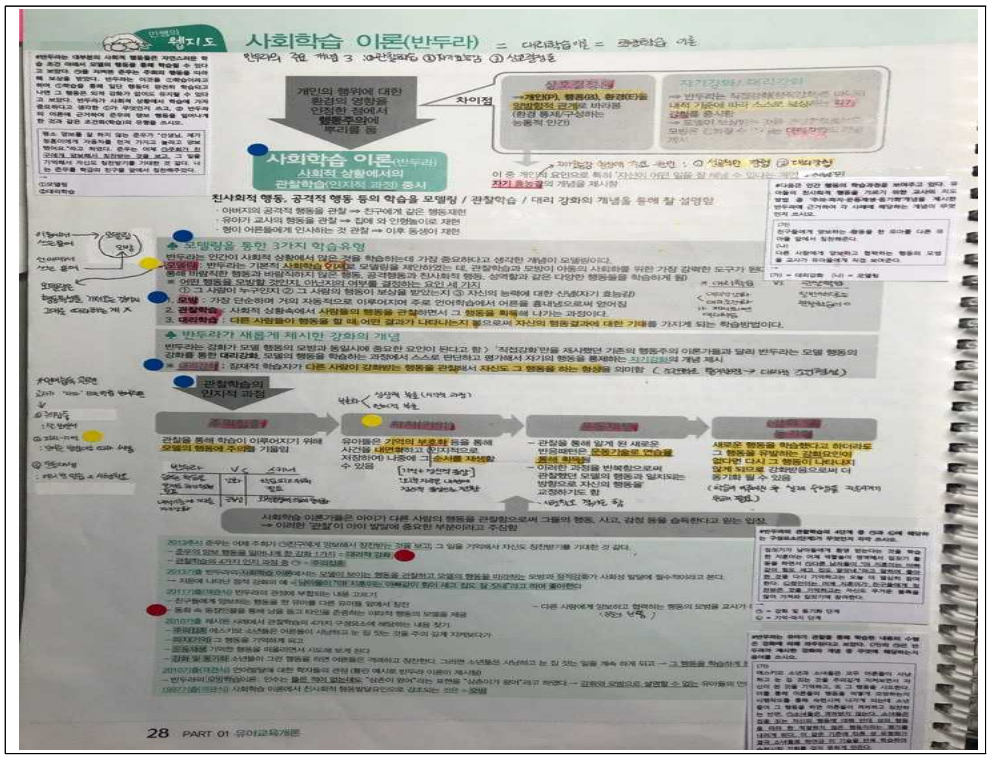
매 주 등수가 들쭉날쭉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끝까지 다독였어요. 모의고사 때에는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것들이 있고,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것들이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것은 바로 외우면 되지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린 것은 ①알고보니 오개념이었던 것 ②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라 대~충 안 것 ③용어만 알고 설명은 두리뭉술하게 안 것 등등이예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부해야만 '발전'이 있습니다!

또 저는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반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다른 수험생들과 함께 논술,교육과정을 풀게 되면 긴장감이 배가 되거든요. 인강을 들으시더라도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시간을 재가며 푸셔야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해요!
오답노트	전 **오답노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어용**!!!!!! 모의고사를 푼 당일 날 바로 채점해서 집에 오자마자 새롭게 한 부를 다시 뽑았어요. 그리고는 틀린 문제를 모조리 다 잘라서 a4용지에 붙였어요. 그리고 이 때부터는 일요일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끝나고 집이나 독서실에 가서 틀린 문제에 대한 해설&왜 틀렸는지를 옆에 적었어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일요일까지 끝낸거죠! 그리고 틀린 부분은 웹지도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표시했어요. 평일동안은 매일 매일 매일 보았어요. 이번에 틀린 문제들도 보고, 저번 회차 때 틀린 것들도 계속 반복해 보았어요. 밥 먹을 때 보기 가장 좋았어요. 오답노트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본 것 같아요. 한 7번 정도 돌려보았구요. 봐도 봐도 계속 헷갈리는 것이나 틀리는 것은 별표로 크게 표시해 두고 시험 전전날에 한 번 더 체크했어요. 틀린 문제가 무진장 많아서 만들 때 힘들었지만 그만큼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많이 맞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논술	논술은 매주 올라오는 문제를 실전처럼 시간 맞춰 풀어보았습니다. 이 시기 민샘의 논술 문제는...정말 어려워요 ㅠㅠ 그래서 그냥 '쓴다'에 의의를 두고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샘이 샘플을 올려주시면 그걸 다시 그대로 따라 전사해보았어요.
법	이 때는 톡톡2를 하루에 day10 씩 빠르게 돌렸는데요. 이때에는 체크한 것(틀린 것)만 풀었습니다! 그리고 민샘 법 자료를 일주일에 한 번 돌릴 수 있게 분량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빈칸을 매일 매일 풀면서 모르는 것 체크해놓았어요. 체크한 것이 두 개,세 개 된 것은 정말 잘 외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독서실에서 집 가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집 갔어요. ㅎㅎ
4주기	4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 돌릴 수 있게 분량을 나누어서 매일 매일 빈칸을 보면서 풀었습니다!
기출	이 시기에는 기출을 연도별로 풀었습니다. 기출 문제가 A형 B형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A형 하나, 다음날 B형 하나 이렇게 반반씩 풀었어요. 분량 조절은 선생님이 편하신대로 하면 되겠지만 저는

	저 당시 기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 정도 분량을 풀었어요. ㅎㅎ 아침에 독서실 가자마자 기출을 딱 풀면 정신이 깨더라구요. 그리고 틀린 것은 체크해놓고 웹지도에 틀린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에 '빨강색' 스티커를 붙였어요. 나중에 웹지도만 보면서 암기,공부할 때 주의깊게 보기 위해서요 ㅎㅎ 저는 기출을 엄청 많이 반복해서 풀어보지는 못했어요(5-6번 정도 반복). 분석도 깊게 하지 못했구요. 그런데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또 전년도 시험 스타일을 보았을 때 최근 경향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고' , '기출과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샘,박샘 2020 설명회를 들어보니까 '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신 것 같더라구요. 선생님들은 꼭!!! 기출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ㅎㅎ
해지	이때부터는 해지 원문을 읽기에는 시간이 넘 없었어요. 그래서 해지를 요약했습니다! 제 요약은 정말 짧!게! 요약한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줄글 위주&이해 위주 였다면, 이때는 **키워드 위주&암기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키워드를 보면서 빠르게 반복&암기 했어요!
스터디	기존의 스터디와 동일 - 시간 인증 - 고시문 인증
자기피드백	이 때에는 공부기계가 되더라구요.... 공부가 되는 날이든 안되는 날이든 기본 10시간은 해냈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도 교회 다녀온 뒤에는 바로 독서실을 가거나 집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멘탈관리	- 등수 : 직강을 다녔기 때문에 매주 학원을 가면 전 주 시험 본 점수와 등수가 문 앞에 붙여져 있었어요. 그 살 떨리는 기분은..아직도 잊지 못해요ㅎㅎ 제 등수가 왔다갔다 거렸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등수가 높을 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도 낮을 때에는 죄책감이 장난이 아니죠. 모두가 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 가진 생각은 '다음주에는 실수하지 않고, 내가 더 공부해서 반드시! 반드시 등수를 높이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정말 등수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긴 하더라구요. 그렇지만 이 등수가 다가 아니라는 것. 결국 당일이 중요합니다. - 점수 : 저는 틀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지만 동시에 '와우 나 이거 내걸로 만들면 시험장에서 맞을 수 있겠네. 와 지금 오개념을 잡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민샘 문제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내것으로 만들면 그게 나중

		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다른 선생님들도 다 어려워요! 당일날 승리하면 됩니다 선생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세요!!!
	강조할 점	이 때쯤 카페에서 올라오는 질문 중 가장 많은 질문은 '하루에 얼마나 돌리시나요! / 얼마나 빠르게 돌려야할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u>**선생님 스타일에 맞추세요**</u>!'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또한 이 시기에 엄청 고민했던 부분이예요. 다른 수험생들은 하루에 개론 2, 각론 2 이렇게 돌리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 '돌리기'를 생각할 때, '내가 하루에 얼만큼 공부할 수 있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보았어요. 얼만큼 공부할 수 있는지는 그 전까지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빠르게 돌리기 vs 천천히 돌리기 중 택일'을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선생님들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스타일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빠르게 돌려도 모르는건 모른다 이 생각이었기 때문에, 천천히 돌리되 정!확!히 알자 이 다짐으로 공부했어용. 물론 10월 말 쯤에는 빠르게 돌리긴 했지만, 10월 중순까지는 개 1 or 각 1 이렇게 공부했어요! 모든 기준은 선생님입니다!!! 자신을 파악하는게 정말 중요해요 ㅎㅎ
11월	- 11월은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집중 텐션이 전보다 약간 떨어지긴 하더라구요. 이 때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요런 마음으로 최대한 정신을 부여잡긴 했어요.	
	공부시간	11월 - 평균 10h
	웹지도	일명 돌리기라고 하죠? 저는 4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2일에 한 번 이렇게 나누어서 빠르게 전체 돌리기를 진행했습니다! 하루에 전체 돌리기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구요..ㅋㅋ 웹지도에 <u>표시해놓은 스티커(기출에 나온 것/기출인데 내가 자주 틀리는 것/모의고사에서 틀린 것/헷갈리는 개념 등)가 붙여진 내용은 더 유심히 보았어요.</u> 그리고 지금까지 '이건 <u>시험 전날에 꼭 보겠다</u>' 했던 것들을 미리 모아놓거나 표시해 둔 다음에 시험 전날에 보았습니다.
	오답노트	오답노트도 쌓이고 쌓이면 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자주 봐서 이제는 안 봐도 괜찮은 문제들은 넘기고, 봐도 봐도 새롭게 느껴지거나 헷갈리는 것들을 위주로 별표를 쳐서 반복해 보았어요!
	기출	지금까지 풀었던 기출 중 틀렸던 것&중요한 것만 따로 체크해서 반복해서 보았어요.
	해지	키워드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돌려 보았어요.
	강조할 점	<u>**이 시기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시기가 아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u> 다른 강사들이 이런 걸 강조했다더라, 이런 걸 새로 알려줬다더라 이야기들을 듣다보면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불안함이 밀려오실 수 있어요. 그치만 새로운 것은 과감하게 패스하고(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존에 선생님이 자주 틀렸던 것, 헷갈렸던 것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도 이 기간에 오답노트를 계속 돌려보고, 웹지도에서 계속 틀렸던 부분&헷갈리는 부분을 위주로 보았습니다.
1차 팁	정서적 지지	- **함께 공부하는 지지자** : 시험을 1년 동안 준비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만남도 줄어들고, 세상과 조금씩 단절하면서 공부에 전념하게 되어요. 아무래도 이 시험의 어려움, 공부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짝 스터디를 함께 하는 동기 친구와 1년 동안 서로 정서적 지지자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스타일인데 제 친구는 긍정적이고 담대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자연스레 함께 지내면서 그런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서로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격려, 응원을 해주면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났고, 그것이 결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ㅎㅎ. 이 정서적

	지원은요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제 수험생활을 돌아보았을 때, 만약 혼자 공부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도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꼭 곁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웹지도 스티커	웹지도 단권화를 하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티커'를 활용했습니다! 파랑색- 기출에 해당하는 내용 빨강색- 기출인데 내가 틀린 것 노랑색- 모의고사 때 틀린 것 초록색- 잘 모르겠는 것 / 헷갈리는 것 시험이 다가올 때는 이 스티커가 붙여진 내용을 더 중점적으로, 주의 깊게 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실수 줄이는 연습	저는 이번 1차 시험에서 말도 안되는 실수 2가지를 해서 -2점을 날렸습니다. ①성격형성학원을 '성경형성학원'이라고 씀 ②유아의 이름을 쓰라는 것을 요구한 문제에서 이름을 쓰지 않음.. 돌아보니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뻔할 수 있지만, '검토'의 절차를 머릿속에 되뇌이며 연습하시면 분명 시험장에서도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요. 선생님은 꼭 실수를 만회하셔서 고득점을 얻으시길 바랄게요:> **<제가 생각하는 실수 줄이는 검토 절차>** ①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내가 쓴 답이 대응하는 지 확인 : ex. ( )수준 여기서 괄호에 들어갈 것을 쓰시오. → '시각적 수준'이 아닌, '시각적'이라고 써야 함. ②내가 문제지에 쓴 답과 답안지에 쓴 답이 일치하는 지 확인 : ex. 문제지에는 시각적 수준이라고 쓰고는 답안지에 시간적 수준이라고 쓰면..아니되어요..ㅠ ③내가 답안지에 쓴 답의 철자가 맞는지 확인 : ex. '성경형성학원'이 아니라 '성격형성학원'

2차 공부 방법 - 시기별

1차 결과	스터디	같은 지역에 사는 6명의 선생님들과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		인원이 많아서 좋은 점은 집단토의를 원래 스터디원끼리 할 수 있다는 점! 아쉬웠던 점은 인원이 많다 보니 스케줄 잡기가 힘들었다는 점!
	수업실연	7명 중 3명 / 4명이 나누어 진행 & 일주일에 3번 주제는 기출 문제로 정했고 하루에 한 개 씩 진행하였어요. 이 때는 시간 안에 해내는 것보다는 내용을 충실하게 준비해서 실연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각자 주제에 대해 미리 계획안을 세워와서 실연하고 피드백을 나누었습니다.
	면접	①1-2주 : 1주일에 5번 (평일 매일매일) 스터디원과 돌아가며 짝스터디로 진행. 하루에 한 번 통화로 구상형 1, 즉답형 1 문제에 대한 답변하기 (문제는 그날 아침에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②3-4주 : 1주일에 3번 3명 / 4명이 모여서 하루에 구상형2, 즉답형 2 문제를 시간에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을 했어요.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시간에 맞춰 연습하니까 훨씬 도움이 되더라구요!
	집단토의	스터디원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씩 연습. 시간 맞춰서 민샘&임샘&기출 문제로 하루에 2개씩 진행했어요.
	강의	완강은 못했어요 ㅠㅠ 제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 보았습니다.
	경기시책	이 때는 경기시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도서	하루에 유형별로 하나씩 읽고 그날 밤에 스터디 원들과 그룹콜로 좋은 발문/ 좋은 활동 / 나라면 이걸 더 추가하거나 수정하겠다 등등을 설명해주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강조할 점	저는 1차 발표가 나기 전까지 '공부하기 싫어!!!!' 와 '나 합격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두가지 마음 때문에 정~말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카페에서는 전년도 합격생 분들이 무조건 준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정말 마음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돌아보니... 2차는 정~~~~~~~~말 중요합니다...ㅠㅠ 합격했을 때> 발표 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정말 후회를 하게 됩니다. 후회가 남으면 안되잖아요? 합격하지 못했을 때> 2차를 준비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랍니다. 설령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2차 준비가 반드시 다음 시험 때 엄청난 도움이 되실거예요.. 절대 날라가지 않습니다! **꼭 꼭 꼭 꼭 1차 시험 끝나고, 가채점과 상관 없이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열어봐야 압니다. 아~무도 몰라요 !!!!!!!!
1차 결과 후		
	스터디	스터디를 6명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실연,면접 모두 2/2/2명 나누어서 짝스터디로 진행했어요. 매일 매일 다른 스터디원과 만나 돌아가면서 연습했어요. 집단토의를 할 때만 6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업실연	1주) 6명이 매일 매일 만나되 하루에 3명만 수업 시연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 앞에서 긴장감 있게 수업을 해보고 싶었고 또한 많은 피드백이 필요할 것 같아서였어요! 일단 모여서 시간에 맞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상을 다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3명만 앞에서 시연을 했어요. 나머지 인원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태도/내용/상호작용 측면에서 나누어서 보았어요. 그 날 수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집에 가서 바로 수업시연을 혼자 해보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 밴드에 인증하는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2-3주)

	많은 피드백을 받았다면, 이제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했기 때문에 2명씩 나누어서 매일 또는 1주일에 3번 만났습니다. 어떤 수업을 할지 문제를 미리 만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6명 모두가 똑같은 주제로 수업실연을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시간에 맞춰 수업을 구상하고 시연,수업나눔까지 진행했습니다. 짝스터디원과 매일 만나서 하루에 수업 2개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자세하게 해주었습니다. 제 수업영상은 매일 찍어 밴드에 올려 다른 스터디원들과 공유했어요. 나는 ~ 방식으로 수업을 구상했는데 다른 선생님은 ~게 하셨네. 좋은 방법이다. 하면서 도움을 얻었어요. 4주) 시험 일주일 전에는 스터디원들과는 잠시 작별하고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에서 어머니 앞에서 아침에 수업 한 개, 저녁에 수업 한 개 연습을 했어요. 수업나눔의 중요성을 느즈막히 깨달아서 후다닥 만능틀을 만들어서 외웠어요. 이때 만능틀을 만들어 놓은게 실제 시험 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만능틀이란 수업나눔에 나올법한 문항 별로 내가 꼭 말하고 싶은or말해야 하는 멘트를 준비하는 거예요.
면접	1-2주) 짝스터디원과 매일 만나서 하루에 구상 2, 즉답 2, 자성소 1을 10분에 맞추어서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 앞에서 한 세트를 또 연습했어요. 3주) 1-2주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되, 빈도를 일주일에 3번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신 집에서는 매일 연습했어요. 4주) 시험 일주일 전에는 스터디원들과는 잠시 작별하고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신 연습을 쉬지는 않았고 집에서 거울을 보거나 어머니 앞에서 계속 해보았어요. 이 때는 면접 요약본을 계속 훑어보면서 그걸 입으로 뱉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집단토의	기조발언/정리발언을 틀을 만들어 정리해놓았습니다. 6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주제 2개를 했어요. 결과 전에는 그냥 해봤다면, 이때는 집단토의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검토했고, 끝난 후에는 꼭 피드백을 했어요. 참고로 영상으로 다시 내 모습을 보니까 태도,자세를 볼 수 있어 고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당일날 어떤 동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어떤 날은 리더 역할도 해보고, 또 어떤 날은 엉뚱한 말도 해보는 식으로 스터디원들과 역할을 바꿔가며 연습했어요.
경기시책	경기시책을 다 프린트 해서 나름의 요약정리를 했어요. 경기 시책 중 경기교육기본계획 같은 건 정~말 뜬구름 같고 추상적이라서 이해도 안되고 암기도 안되더라구요.. 그치만 최대한 눈에 익도록 읽는건 필요할 것 같아요 ㅠ 면접이든,수업나눔이든,집단토의든 경기시책 용어를 몇가지 넣어주면 확실히! 플러스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조할 점	2차를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암기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적 영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2차 시험을 설명할 때 정의적 측면을 평가하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은 이미 1차 시험에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2차 시험에서는 태도&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수험생을 평가하는 면접관님들은 실제 현장에 계시는

		원장,원감,부장,장학사님 이시기 때문에 사실 주관적,인간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저 분들이 생각할 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현장에서 같이 일하고 싶은 교사' 였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나를 대입시켜보려고 했고 말투,톤,제스쳐,표정 등을 내가 정말 현장에 있는 교사다 생각하면서 연습했어요. 실제 시험을 치르면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도! **태도**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ㅎㅎ ***나만의 강점 만들기** 저의 경우, 노래 부르는 것에 꽤 자신이 있었고 노래를 즉석에서 재빨리 만들어내거나 기존의 노래를 개사하는 것을 잘 해내는 사람이었어용. 그래서 이 강점을 살려 수업실연 연습을 할 때 항상 노래를 새로 만들어 하나씩 넣어 불렀어요. 미세먼지 송(나침반송을 개사함) / 감상 시 약속 송 / 정리 송 / 수업주제나 목표에 맞는 노래 즉석에서 만들어내기 등등 만든 노래는 스터디원들과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기지 발휘에 도움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업 실연 때에도 노래를 즉석에서 얼른 만들어 도입 때 불렀어요!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강점을 찾아 꾸준히 연습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시험 당일	복장&메컵	메이크업은 그냥 제가 했구요. 머리는 반묶음을 했어요. 밝은 분홍색 원피스를 샀는데 처음에는 첫날,둘째날 다 그 원피스를 입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면접 때 분홍색 원피스를 입기에는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서 ㅋㅋ 시험 전에 급하게 검정색 원피스를 샀어요. 그래서 면접 때는 검정색 원피스, 수업 때에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복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으로 갖춰 입는다면 좋겠지요?ㅎㅎ
	집단토의	집단토의는 동료 운이 있더라구요.. 저는 감사하게 함께 토의한 분들이 정말 좋으셔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 집단토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토의에 임하는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집단토의 기조발언,정리발언 틀을 만들 때, <u>말 한 마디가 중요한 한 방이 될 수 있겠다</u>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다른 스터디원들과 2차 연습할 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때 기조발언 : 안녕하세요.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는 선생님들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리발언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 방법들은 모두 다 소중한 구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교사가 되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u>감정을 호소하는 멘트</u>를 했어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ㅎㅎ 그렇지만 이 집단토의는 다른 시험 영역에 비해 정의적 측면을 더 보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목소리,톤,다른 선생님들이 이야기 할 때 공감하는 것, 표정, 협력하는 자세 등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시험에 임했습니다!
	면접	2번을 뽑았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제 평가자 분들은 정말 거짓말 안보태고 한 분도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체크를 하거나 뭘 쓰셨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밑에만 쳐다보고 계시더

<table>
<tr><td></td><td>
<table>
<tr><td></td><td>라구요. 보통 한 분 정도는 저를 쳐다봐 주실 법도 한데 아무도 안 보시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나? 내 답변이 얼마나 허술하면 적으실 것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풀이 죽어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마음이 제 목소리나 태도에도 조금은 드러났겠지요..? 그래도 처음에 들어갈 때, 인사할 때, 마지막 나올 때 씩씩하게 인사하고 아주 밝게 인사했어요. 그 때는 끝까지 쳐다봐 주시더라구요!
결과적으로 제 면접 점수를 보았을 때, <u>평가자 분들의 제스처,표정 등등은 결과는 무관한 것 같아요!!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u></td></tr>
<tr><td>수업실연</td><td>6번을 뽑았어요..!
사실 미세먼지 대체 활동 / 놀이중심
이 두가지는 2차를 준비할 때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라 덜 당황하긴 했지만... 5분 정도는 뭘하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ㅠ 솔직히 자유선택활동을 너무 하고 싶었지만 창의성도 경력도 제로였던 지라 도저히 나무심기 활동을 다양하게 생각해낼 수 없더라구요. 그러다가 번뜩 생각이 나서 후다다닥 준비를 했어요.
실제 시험을 볼 때에는 평가지를 최대한 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중간 중간 조건 빠트린게 있을까봐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저는 수업실연을 연습할 때 노래도 떨지 않고 부르고 제스처도 나름 크게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평소 하던 것의 1/10이 되더라구요.
시험을 보며 느낀 것은
①연습이 중요하다.
②연습 때 더 오버를 많이 해야 한다.(어차피 현장에서는 떨려서 그만큼 못할테니까ㅠ)
이었습니다. 대신 정말 많이 웃었어요,
수업나눔 때에는 '아무말 대잔치를 하더라도 웃자!'를 목표로 했고
실제도 웃으면서, 면접관 분들을 한 분 한 분 아이컨택하며 여유있는 척(사실은 엄청 떨었어요ㅠ) 이야기를 전했어요. 마지막 제 포부를 말씀드릴 때는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약간 울먹거렸어요ㅋㅋㅋㅋ</td></tr>
<tr><td>그 외</td><td>교실이 정~말 건조해요. 그래서 첫째날 둘째날 모두 다 화장이 떠버렸어요ㅋㅋㅋ
저는 수습을 못했지만.. 선생님께서는 꼭 미스트를 챙겨가시거나 화장을 촉촉x100 하게 하구 가세요..!
그리고 저는 핫팩을 여유있게 챙겨 가 한 손에 하나씩, 발에도 하나씩 넣어놓았어요. 확실히 그렇게 하니까 긴장이 풀리고 따뜻하더라구요ㅎㅎ.</td></tr>
</table>
</td></tr>
<tr><td>답안 복기
- 1차</td><td>
<table>
<tr><td>논술</td><td><u>논점 1 > 교사의 관심사 3 + 동료장학 내용 3</u>
관심사 1. 학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동료장학 : 동료 간 협의
관심사 2.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동료장학 : 수업 사례 분석
관심사 3. 현장연구
동료장학 : 전문서적 읽기와 토론
<u>논점 2 > 동료장학의 기대 효과 박/김 교사 측면 2가지 씩 (4)</u>
박교사 1 :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과 기술 습득하여 전문성 함양
박교사 2 : 유치원 현장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 위한 방안 모색
김교사 1 : 수업 성찰 → 자신의 수업을 되돌아 봄 & 질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
김교사 2 : 자신의 교수행위를 공유함으로써 교수효능감 높아짐
<u>논점 3 > 신임교사의 관심사 1 + 동료장학 내용 2</u>
관심사 : 수업 실행</td></tr>
</table>
</td></tr>
</table>

	동료장학 1 : 수업사례 - 경력 교사의 수업 사례 보기 동료장학 2 : 멘토링 - 경력교사의 수업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과 정서적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성 형성 **논점 4 > 신임 교사의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극복 방안 2** 1. 학부모 관계 측면 - 경력교사에게 자문하여 학부모와의 긍정적 소통 방법 배우기 2. 동료 교사 관계 측면 - 원 내 교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소통하려 노력하기
교육과정	**교육과정 A** 1. 1) 정의적 영역 2)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3) ① b.시청각적 경험 / ② 역할을 정하여 '토끼와 거북이' 동극을 한다 4) 문화전달주의 2. 1) 대교수학 2) 노작의 원리 3) ① 프뢰벨 / ② 은물 4) ① 오웬 / ② 성경형성학원(실제 답 : 성격형성학원) 3. 1) ① 의사결정자 ② 상담자 및 조언자 2) 컨설팅 장학 3) ① 생태학적 변화로서의 교사발달 / ② 자기이해로서의 교사발달 4. 1) 남아들은 의사 역할을 하고 여아들은 간호사 역할을 하더라구요. 2) 동일시 3) 양성성 4) ① 관찰학습 / ② 주의집중 5. 1) ① 보행자 전용도로 / ② 어린이 보호 (실제 답 : 그 반대) 2) ① 감염 / ② 심폐소생술 3) ①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② 교통사고와 방지대책 6. 1) ① 팔을 앞으로 뻗어 흔들어요. / 위아래로 흔들어요. ② 천천히 흔들어요. / 점점 빠르게 흔들어요. 2) 받기,던지기,차기 3) ① 순발력 / ② 뛰어넘기 7. 1) ① 생성의 원리 / ② 융통성의 원리 2) ① 철수는 "사자가 달려간다 곰가 달려간다"라고 썼다. ② 자신이 알고있는 문법규칙인 '주어 뒤에 붙이는 주격조사 -가'를 곰 뒤에도 확대하여 적용했기 때문이다

3) ① 수평적 ② 수직적

8.
1) ① 사회적욕구의 주장 / ② 지금 이야기짓기 활동을 하니까 조용히 해줘.
2) 사람들이 씨름을 하고 있구나
3) 초성이 같은 낱말 찾기
4) ① 전승 / ② 현실동화

교육과정 B(확실히 틀린 것 1개, 애매한 것 4)
1.
1) ① 중앙집중의 오류 / ② 양극단의 평가를 피하고 중간 점수에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2) ① 관찰자 간 신뢰도 ② 관찰자 내 신뢰도
3) 타당도
4) 시간표집법

2.
1) ① 개념형성 단계 / ② 기술습득 단계 / ③ 다른 부모들과 아이를 키울 때 겪었던 고충을 나눈 점이 도움이 됐어요.
2) 장난감은 던지는 게 아니라 갖고 노는 거니까 던져서는 안된다고 했어요.
3) 서하가 "저번에 내가 던진 장난감이 부셔져서 갖고 놀 수 없었어."라고 하더군요.

3.
1) 정체성
2) ① 사전답사 / ② 현장학습 동의서
3) 지역사회 인사 초청
4) ① 협력 / ② 존중

4.
1) ① 병행-극놀이 / ②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지만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병행놀이의 특성과 상황,사물 등을 가작화하여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극놀이의 특성이 드러나는 유형이다.
③ 집단-극놀이
2) 단위블록
3) 각성

5.
1) ①기저선의 표현 / ② 의인화 표현
2) ① 콜라주 ② X(실제 답 ; 마블링)
3) 두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있는 부분은 어디니?
4) 두족인

6.
1) '봄의 노래' 감상하기
2) 트라이앵글,마라카스,우드블럭은 가락이 없는 무선율 타악기이기 때문이다.
3) ① 셈여림 / ② 빠르기
4) 다장조의 노래이다

			7. 1) ① 시각화 수준 - 시각적 외양을 근거로 도형을 인식하는 수준 ② 세모의 속성을 설명하는 우진이의 설명에도 세모라고 설명하는 우진이의 설명에도 세모라고 하는 이유를 산처럼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연희의 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 세모 2개를 가지고 이쪽과 저쪽으로 방향을 돌리니까 네모가 됐지? (이름 '영채'를 안씀) 3)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해본다 4) 표상하기 8. 1) ① 내가 주스 파는 사람 할게. 주스 사세요. ② 어? 물이 적어졌다. / 신기하다. 물이 다시 많아졌어 2) ① 내 차가 더 멀 리가, 무거우니까 / ② 블록의 양 3) 저는 내일은 로봇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계의 편리함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답안 복기 - 2차	수업실연	도입	"나무야 고마워~ 우리는 친구야." (나무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노래를 재빨리 만들어서 도입 때 불렀습니다.) 하늘반이 모두 모일 동안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나무야 고마워 노래를 불러보았어요. (유아의 표정을 살피는 시늉을 하며) 어, 그런데 지수의 표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나요? (경청하는 표정&끄덕거리며) 아 그래요. 원래 오늘 나무를 심으러 나가기로 했었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이라 못나가게 돼서 지수가 속상했구나. (속상한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도 하늘반과 나무를 심으러 나갈 생각에 잔뜩 신나 있었는데 속상하네. 경수가 오늘 미세먼지가 나빠서 우리 반 미세먼지 스티커 색깔이 빨강색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경수가 자세히 관찰해주었구나. 나무를 심으러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나무를 심고 싶다고 했던 어린이들이 있었지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교실에서 나무를 심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그래요. 나연이가 말해준 것처럼 나무 심기 게임을 하자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미술 활동으로 나무를 심어보고 싶다고 한 어린이들도 있었지요. 희영이는 게임이랑 미술 중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투표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미리 투표를 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얼른 보고 싶구나. 자 한 번 볼까요? 게임은 하나,둘....열 명 미술은 하나,둘....열 다섯 명이네요. 그럼 이번에는 교실에서 미술 활동으로 나무를 심어보기로 해요. 활동을 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아 저번 요리활동 때처럼 자기가 원하는 순서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린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선생님 옆에 있는 융판에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모두 다 붙여주었나요? 그럼 이제 자유선택 활동을 해야 하니까 놀이 계획을 해볼까요? 모두 계획을 했나요? 아 참! 자유선택 활동을 하기 전에 (옆을 가리키며) 우리가 나무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원준이 어머니께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에 이름표를 붙여준 어린이들은 미술영역에 모여주세요. 다른 어린이들은 자유선택 활동을 하러 출발! (적고 보니 도입이 길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3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전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유아들이 미술영역에 모인 것을 확인한 듯한 모션을 취하며) 모두 모여주었네요. 팔토시/앞치마 한 것을 보여줄까요? 반짝 반짝~ 아까 여러분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말해주었는지 기억 나나요? (미리 이야기 한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요. 나무는 교실에 모아두었던 삼다ㅇ 페트병으로, 흙은 미술영역에 있는 찰흙으로, 숲은 과학 실험을 할 때 사용했던 크고 낮은 수조를 사용하기로 했었지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하나씩 상호작용하였습니다.)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요? 삼다수 페트병을 먼저 나무로 만들어주고 싶구나! 좋은 생각이다. 그럼 미술영역에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만들어보아요. 사연이는 페트병에 갈색 색종이를 붙였군요. 아 기둥을 표현하는 거군요. 무송이는 털실을 페트병 아래에 붙이고 있네.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건가요? 아~ 나무에 뿌리를 만들어주는 거였구나. 재미있다~! 아 원준이는 빨대를 가위로 잘라서 가지를 표현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원준아, 그런데 우리가 미술영역에서 가위를 사용할 때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조심’이었지요.(안전조건 충족) (생각해보니 약속을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구요. 이때 아차 싶었어요ㅠㅠ 약속을 정하지 않은 것이 감점 요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나무를 다 만들었나요? 한 번 들어볼까요? 우와~ 정말 멋지다. 다양한 나무들이 만들어졌네. 이제는 무엇을 하고 싶나요? 아, 이제 수조 바닥에 찰흙을 깔고 싶구나. 그래요. 수조 바닥에 찰흙을 골고루 깔아줄까요? 아 지혜가 “선생님 찰흙이 부족해요. 선생님이 찰흙을 더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한번쯤은 직접화법으로 표현했어요.)”라고 말해주었어요. 선생님이 찰흙을 좀 더 가져다 줄게요. (찰흙을 가져다 주는 모션) 여기 찰흙을 더 가져왔어요.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면 선생님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아 건모는 선생님도 찰흙을 같이 눌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구나. 선생님도 같이 해볼게요. (찰흙을 누르고 만지는 시늉을 하며) 우와 부드럽다~! 찰흙을 다 깔았나요?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 여러분이 만든 페트병 나무를 찰흙에 심고 싶구나. 어떻게 심어 볼 수 있을까요?
영수는 일단 찰흙을 나무가 들어갈 정도로 파야한다고 이야기해주었어요. 무엇을 사용해서 찰흙을 파면 좋을까요?
삽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영이는 삽은 안 될 것 같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수조 안에 있는 찰흙이 너무 적어서 삽으로 하면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삽은 진짜 나무를 심을 때 사용하면 좋겠구나.
어, 무송이에게 좋은 생각이 있대요. 한 번 들어볼까요?
아 이번에는 (양쪽 검지 손가락을 들며) 손가락 삽을 이용하면 좋겠다구요? 다른 어린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래 재미있겠다! 그럼 손가락 삽 준비! 시작~
아 이제 페트병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심으면 좋을까요?
사연이는 페트병 나무가 움직이지 않도록 찰흙을 꾹꾹 누르면 될 것 같대요. 좋은 생각이다. 한 번 해볼까요?
아 준영이가 한 손으로는 페트병 나무를 들고 한 손으로는 찰흙을 만져야 돼서 혼자 하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졌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친구가 페트병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친구가 흙을 눌러 덮어주면 될 것 같다구요? 와 정말 훌륭한 생각인데요?
다른 어린이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아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페트병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좋아 그럼 두 명씩 짝지어 서로 돕고 협력해서 페트병 나무를 심어보도록 해요.
다 심었나요? 우와 완성이다~~
나영이는 여러 나무들이 모여 있으니까 마치 숲 같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아 사연이는 이 숲에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린이들도 이름을 지어주고 싶구나.
그래요 그럼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요? 아 협력 숲이라고 하고 싶구나. 멋진 이름이네요.
이 협력 숲에 더 꾸며주고 싶은 게 있나요?
버섯/다람쥐/꽃을 만들어서 꾸미고 싶군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 이 많은 나무들이 숲에 있으면 다양한 동물과 꽃들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섯/다람쥐/꽃을 만들어주고 싶구나.
그럼 미술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꾸며줄까요?
협력 숲 완성~~~~
지수의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아보여요. 아~ 아까는 밖에 나가지 못해서 속상했었는데, 교실 안에서 나무 심기 활동을 친구들과 함께 해보니까 재밌었구나.
건모는 이 나무들에게 (두 손을 모아 입에 가져다 대며) “나무야~ 미세먼지를 흡수해줘!”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구나.(수업을 진행하다가 나무와 공기 정화를 관련시킬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아서 이 멘트를 급하게 생각했어요.) 아 다른 어린이들도 그렇게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나무에게 이야기해줄까? (하면서 끊겼습니다.)
수업나눔	1번문제)저는 유아가 흥미를 느끼고 주도성을 가지며 몰입하여 경험하는 모든 것을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선택 활동만 놀이가 아니라 교사주도적인 활동 이라도 놀이적 요인이 반영된다면 놀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놀이의 가치를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고려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가 활동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무심기 활동을 실내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볼지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여러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진행하여 유아들이 직접 놀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끈 점입니다. 미술활동을 교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스스로 재료,방법 등을 선택하여 그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주도성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 경기 놀이 자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용) 2번문제) 유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배움 중 제 수업에서 일어난 배움은 협력적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술활동을 할 때에 각자 만든 나무들을 모아 큰 숲을 만들어봄으로써 협력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혼자 하기 어려운 일들을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협력적 배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유아 간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의도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 유아가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유아가 도와주는 상황을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성현아 어려운 것이 있나요? 아 ~ 하기가 어렵구나. 혹시 성현이가 ~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아 은영이가 도와주고 싶구나. 아 ~게 도와준다구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하며 협력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작품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각자 만든 나무를 모아 큰 숲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좀 깎인 것 같아요....ㅠ 부실했거든요..!) 3번문제) 수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놀이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놀이 중심으로 수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놀이는 꼭 자유선택활동 뿐 아니라 교사 위주의 대집단 활동이더라도 놀이적 요인이 반영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놀이적 요인 다섯가지인 선택,몰입,흥미,주도성,과정지향을 수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선택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몰입,흥미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유아가 원하는 놀이방법을 직접 정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도성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미술활동 전반적인 과정을 유아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이라는 제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 수업이 수동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놀이 중심 수업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놀이 중심의 수업에 대해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고민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교사들과 공동체를 구성하여 어떻게 하면 유아 중심,놀이중심의 수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협의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원내 뿐 아니라 어울림 교육을 통해 다른 유치원 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더 질좋은 공동체를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 교사가 된다면, 유아들이 교실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유아와 교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부분을 물어보았는데 처음에 약간 벗어나게 말한 것 같아서 여기서도 좀 감점이 된 것 같아요..)

	면접	잘 기억이 안나서..ㅠㅠ 키워드 위주로 적겠습니다. 구상형1) *첫째, 자기장학 측면 - 교사 이야기 쓰기 : 기대감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음 *둘째, 동료장학 측면 - 전문서적 읽기 및 토론 : 배움중심 수업을 주제로 한 서적을 읽고 동료교사들과 교사의 성장을 위한 방법과 유아들의 배움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놀이,활동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하기 구상형2) *행동의 원인 : 교사에게 관심 받기를 원함 *해결방안 : ①유아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주겠다.(이 때 '경기야 ~했겠구나.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아에게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해서요!) ②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하겠다. ③행동 한계 설정을 하겠다. 나 전달법으로! (그렇지만 ~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야. / oo이가 교실을 나가면 선생님이 ~해서 걱정이 돼.) ④대안행동을 설정하겠다. ⑤대안 행동을 유아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겠다. 즉답형1) (여기서 감점이 되었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예를 들지 못했거든요.) 주도성 증진 위해 첫째, 스스로 해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 둘째, 유아가 주도적으로 행동했을 때 칭찬,격려 하겠다. 즉답형2) ①사전답사 : 경로, 위험요인,화장실,식사 장소 등등을 사전에 알아보겠다. ②현장학습지 담당자와 협의 : 안전하게 현장학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담당자와 협의하겠다. ③이름표목걸이 준비 ④미아송 부르기

God bless you-♥
선생님!! 힘들고 지칠 때,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을 모습 또는 합격한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최종합격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을 기다리며 응원할게요! 힘내세요!^^